

한국 무용학의 창의성 논의 양상과 그 의미*

김 현 정**

I. 들어가는 말	IV. 나가는 말
II. 창의성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	참고문헌
III. 한국 무용학에 나타난 창의성 논의 양상	Abstract

I. 들어가는 말

무용예술에서의 '창의성'이란 무엇을 의미할까? 창의성이란 선천적으로 타고 난 특성인가, 또는 지속적인 교육, 훈련을 통해 후천적으로 학습, 개발, 획득될 수 있는 것인가? 창의성은 과연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측정될 수 있는 영역인가? 각 시대별, 분야별 창의성 논의는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을까?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면서 정부와 각 대학은 미래 인재의 주요 역량 중 하나로 창의성을 중요시하고 있는데, 무용은 이러한 창의성 증진과 담론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들에서 시작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무용학에 나타난 창의성 논의 양상과 그 의미를 탐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 방법은 문헌연구와 메타분석이다. 메타분석이란 특정 주제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고찰, 비교하여 연구의 성과, 의의, 유사성과 차이점, 한계 등을 탐색해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해 내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는 '무용학'이란 개념을 무용에 대한 철학, 미학, 역사학, 사회학, 인류학, 교육학, 치료학적 연구 등을 포함하는 하는 폭넓은 개념으로 사용한다. 그리고 국내 무용학 연구결과물들을 제공하는 전자웹데이터베이스 RISS에서 '무용'과 '창의성'이란 두 단어를 '논문명'으로 사용한 연구들을 검색한 결과 발견된 KCI 등재지 논문 35편을 대상으로 창의성 논의 양상을 분석해 본다면 창의성에 대한 무용인들의 인식의 주요 흐름을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무용과 창의성의 미래지향적 연계 방안들을 모색해 볼 수 있다고 판단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35편의 각 연구가 무용에서의 창의성을 어떠한 방식으로 논의하고 있는지를 연구 경향별로 분석하고, 기존 연구의 성과와 한계점, 그리고 그것이 무용계에 던지는 시사점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 본 논문은 2017년 5월 27일 한국무용예술학회 제 22차 학술발표회에서 발표되었던 것을 수정·보완하였다.

** 충남대학교 무용학과 조교수, arthjuer@cnu.ac.kr

선행 연구들은 무용과 창의성의 밀접한 연관성을 입증하기 위해 개별 사례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¹⁾ 유혜경(2009)의 연구가 무용 창의성을 다룬 논문들을 고찰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유사하나, 유혜경의 연구는 주제를 ‘무용 창의성, 청소년 정서지능, 사회성’으로 제한하여 1990년에서 2008년까지의 대학원 학위논문, 학술지 논문들에 주목하고 있고,²⁾ 본 연구는 주제를 특정 대상으로 제한하지 않고 RISS에서 ‘무용 창의성’ 검색 결과인 1999년에서 2017년까지의 KCI 등재 논문들을 포괄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분석대상 논문의 주제와 출간 시기를 좀 더 확대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다르다. 또한 약 18 여 년에 걸쳐 진행되었던 선행 연구들을 취합, 비교, 분석, 맥락화 함으로써 한국 무용학의 한 단면을 자리매김 하고 동시에 비판적 성찰과 미래 방향 탐색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성과를 찾고자 한다.

II. 창의성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

서양에서 창의성에 대한 담론은 고대 그리스 시대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계속 경험, 진행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³⁾ 첫째, 창의성이란 인간이 타고난 속성이 아닌 신의 영역이며, 절대자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영감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관점이다. 따라서 창의성이란 신의 선택을 받은 일부 사람들만이 지닌 능력으로 간주되었고, 이러한 인식은 고대 시대부터 르네상스 시대까지 지배적이었다. 둘째, 창의성이란 천재 예술가 개인이 원래 갖고 있는 탁월한 능력으로 보는 견해이다. 이는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 신 중심적 사고에서 인간 중심적 사고로 전환된 것에 기초하고 있는데, 예술가의 천재성을 신비화 하고 예술작품을 창의성의 산물로 간주한다. 셋째, 창의성이란 생물학, 심리학, 사회학적 맥락의 역동적 상호작용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이는 창의성이 소수의 천재가 아닌 일반인들에게도 잠재되어 있기에 개인이 처한 환경에 따라 충분히 개발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러한 세 번째 유형의 통합 관점은 각 세부 접근법에 따라 구체적인 관점들로 재분류 될 수 있는데, 각 세부 관점들은 18세기 중반부터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오랜 기간에 걸쳐 경쟁, 연계, 심화, 발전되어 왔다. 19세기에 과학자 갈톤(Galton)은 통계에 근거해 천재의 정신적 역량이 유전된다고 주장하였고, 반면 계슈탈트 심리학자들은 창의성이란 유전되는 정신적 능력이 단순하게 합쳐진 것이 아니라 유전적 관계 그 이상의 것으로 파악했으며, 과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의 근거를 보여주었다. 20세기 막스 베르트하이머(Max Wertheimer), 울프강

1) 예를 들면, 이옥은(1999), 아동의 창작무용 학습과 창의성 발달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38(3), pp.959-968; 오현주(2015), 중학교 무용창작 수업에의 서사적 무용 통합에 대한 창의성 교육의 효과, 『대한무용학회논문집』 73(3), pp.79-102 등이 그러하다. 참여자, 대상자의 연령만 다를 뿐 무용교육을 통한 창의성 향상을 입증하는 사례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 유혜경(2009), 무용이 한국 청소년의 창의성, 정서지능,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문헌고찰, 『대한무용학회논문집』 60, pp.249-270.

3) 창의성 담론을 유형별로 분류함에 있어서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다. 예를 들면, 김기홍(2013)은 천재 개인의 창의성을 강조하는 낭만주의적 접근, 창의성이 진화해 간다는 과학주의적 접근, 창의성과 사회적 환경과의 밀접한 관계를 강조하는 문화적 접근으로 나누어 논의한다(김기홍(2013), 창의성의 사회적 본성과 문화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 『인문학연구』, 93(4), pp.5-28). 여러 학자들의 다양한 창의성 유형 논의는 용어 사용이 조금 다를 뿐 그들이 다루고 있는 창의성 담론 내용은 대체적으로 유사하다. 본 장에서는 기존의 창의성 담론을 종합적으로 비교 논의한 존 데이시와 캐슬린 레논(1998)의 분류 방식을 따르고자 한다.

켈러(Wolfgang Köhler), 그레이엄 월러스(Graham Wallas)는 창의성을 인지과정과 연계해 논의하였고,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는 어린 시절의 성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이것이 창의성이란 성격적 특성으로 승화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알프레드 아들러(Alfred Adler)는 창의성을 열등감이 극복된 것이라 논의하였고, 칼 융(Carl Jung)은 무의식과 의식적 사고가 결합된 창의성을 주장하였다.⁴⁾ 20세기 중반 조이 길포드(Joy P. Guilford)는 수렴적 사고와 확산적 사고에 기초한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창의성의 핵심으로 논의하였다. 반면, 20세기 후반 존 데이시와 캐슬린 레논은 창의성을 생물학적, 인지적, 개인적, 미시 사회적, 거시 사회적 요인들이 누적, 발전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생물학적 요인으로는 발달된 미세신경세포, 탁월한 기억력, ACTH 호르몬 분비, 뇌 반구 간 상호작용 등이 있고, 인지적 요인으로는 인지적 유연성, 수렴적 사고, 확산적 사고, 은유의 사용 등이 있으며, 개인적 요인으로는 누적된 무의식, 용기, 융통성, 인내심, 자기 통제 등이 있고, 미시 사회적 요인으로는 가족 구성원들 간 상호작용과 사회경제적 위치, 양육 방식과 친밀감 등이 있고, 거시 사회적 요인으로는 교육, 직업, 종교, 정치 경제적 환경 등이 있는데, 창의성은 이러한 여러 요인들의 축적된 복합 작용이라는 것이다.⁵⁾ 이러한 데이시와 레논의 통합 관점은 창의성이 적어도 단 하나만의 고정된 영역으로 간주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후 III장에서 논의될 국내 창의성 관련 무용연구들이 아직까지는 특정 주제 영역에 머물러 있음을 드러내는데 하나의 근거를 제공해 준다.

반면, 서양에서 무용 분야의 창의성 담론은 위와 같이 오랜 기간에 걸쳐 논쟁되어 왔기 보다는, 무용이 예술로서 진지하게 고려되기 시작한 20세기 초부터 본격적으로 발전되어 왔다. 물론 발레가 그 이전 시기에 존재해 왔지만, 16세기에서 18세기까지 발레는 왕실과 귀족 문화와 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추어졌기에 실천자들의 창의성이 주목받지 못하였고, 18세기에서 19세기에 대중적인 오락으로써 간주되어 공연자들의 창의성은 중요시 되지 않았다. 그러나 20세기 초 시작된 현대무용은 발레의 엄격한 규범과 형식에 도전하면서 개인 무용가의 춤 스타일과 창작 방식을 강조하였고, 당대 무용가와 비평가들의 논평 속에 진지한 예술로서 자리 잡아 가면서 무용 창의성 담론을 형성해 갔다.⁶⁾

국내 일반 학계의 경우, 최근 2010년대 중반의 두 연구는 창의성 담론에 대한 기존과 다른 해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최보연·김세훈(2014)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지원 사업이 창의성을 개인적 차원에서 집단적 차원으로 확대하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로서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⁷⁾ 류지은·윤세준·채연주(2016)는 미셸 푸코의 통치성 논의에 근거하여 국내 기업들이 창의성 담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조직구성원들을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기업들이 신자유주의 흐름 속에서 도전 정신, 자기 계발을 강조하고, 성과와 보상, 인문학 강좌, 직원복지 시설 확산 등을 통해 결국은 기업이 원하는 조직원들의 모습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⁸⁾ 이러한 논의들은 창의성이 신의 영역에서 탈신비화 되어, 인간의 영역으로, 그리고 개인을 둘러싼 교육, 과학, 사회, 문화, 정치, 경제, 기업 경영의 영역으로 확대되고 복합적으로 구축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개

4) 존 데이시, 캐슬린 레논(1998), 『창의성의 이해』, 이신동 외(역) (서울: 박학사, 2009), pp.17-50.

5) 앞의 책, pp.199-203, pp.258-293.

6) 김수인(2017a), 사회적 구성체로서의 예술 창의성 개념에 대한 고찰, 『대한무용학회논문집』 75(1), pp.66-72.

7) 최보연, 김세훈(2014), 문화예술교육정책에서의 창의성 인식에 관한 비판적 연구, 『예술경영연구』 30, pp.5-34.

8) 류지은, 윤세준, 채연주(2016), 조직의 통치기제로서의 창의성 담론에 대한 탐색적 연구, 『경제와 사회』 111, pp.237-268.

인의 자유와 상상력, 표현, 통찰력, 문제해결력이라고 여겨졌던 창의성을 비판적 시각에서 재검토할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III. 한국 무용학에 나타난 창의성 논의 양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운영하는 국내 학술 데이터베이스 RISS에서 ‘상세 검색’으로 ‘논문명’을 ‘무용’, ‘창의성’이란 두 단어를 모두 사용한 국내학술지 논문 검색 결과, KCI 등재지 논문 35편이 발견되었다.⁹⁾ 이를 대상으로 연구 방법과 논의의 초점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다음과 같이 비교 분석하였다.

1. 무용에서의 창의성 개념 및 요인 연구

‘무용에서의 창의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집중한 연구는 2000년대 중반·후반에 출간된 3편의 연구가 있다. 이는 무용창의성을 구성하는 요인 탐색과 개념 연구로 나타나고 있다. 오레지나(2006b)는 창의적인 무용가, 안무가의 특성은 무엇인가에 대한 개방형 설문지를 만들어 무용전공 대학생 53명과 10년 이상의 무용경력을 지닌 전문가 53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응답자들이 사용한 주요 단어들을 추려내어 대주제와 소주제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이를 3명의 무용전문가(무용교육자 2명, 무용심리학자 1명)와 협의해 재구성하고, 300명의 무용 전문가(10년 이상 교육, 안무, 또는 무용 경험자)를 대상으로 무용창의성 요인을 재도출 해내고, (무용수, 안무가, 교육자, 대학생, 대학원생) 400명을 대상으로 무용창의성 요인을 재확인 하였다. 이러한 재도출, 재확인 과정에는 SPSS for Windows 10.0과 AMOS 4.0이 활용되었다.¹⁰⁾ 이처럼 자신의 연구, 조사 결과를 전문가들과의 3단계 협의를 통해 결과의 핵심을 걸러내는 것은 연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로 기능하고 있다. 오레지나가 제시한 무용창의성 구성요인은 크게 무용수와 안무가로 구분되는데, ‘무용수’의 무용창의성 구성요인으로는 “‘움직임감각(동작감각, 동작수용력)’, ‘무용사고력(분석력, 상상력, 통찰력, 유창성)’, ‘무용태도(자기훈련, 자기관리)’, ‘예술체험(예술경험, 창작경험)’이 있다. ‘안무가’의 무용창의성 구성요인으로는 ‘심미적 감각(감수성, 정서)’, ‘움직임감각(동작감각, 동작수용력)’, ‘무용사고력(아이디어, 분석력, 관점, 상상력)’, ‘무용구성능력(구성력, 무대구성능력, 작품전개능력)’, ‘예술체험(예술경험, 창작경험)’이 있다.¹¹⁾ 이러한 오레지나의 연구는 무용창의성의 본질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고 있고, 오랜 무용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은 창의성을 소유하고 있고 그것을 언어로 표현해 낼 수 있음을 상정하고 있다. 오레지나의 연구 이후, 무용창의성 구성 요인 탐색은 김경은·안문경의 연구로 이어지고 있다. 김경은·안문경(2007)은 5년 이상의 무용/안무 경력을 가진 안무가 7명을 대상으로 비구조화된 심층면담을 진행하여, 무용(안무)창의성을 관객이 이해할 수 있는 창의적인 동작과 내용으로 작품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논의한다.¹²⁾ 반면, 한혜리(2008)는 타 학문과 공유될 수 있으면서도 무용만의 특수성이 반영된 무용전문용어

9) 논문 44건이 발견되었으나, RISS에서 똑같은 자료를 중복 제공하고 있거나 저자명 표기 오류가 있는 9건은 제외시켰다.

10) 오레지나(2006b), 무용 창의성의 요인 분석, 『한국무용교육학회지』 17(1), pp.205-222.

11) 앞의 글, pp.215-216.

12) 앞의 글, 김경은, 안문경(2007), 무용 안무의 창의성에 대한 질적 탐색, 『한국무용과학회지』 14, pp.1-11.

로써의 무용창의성 개념을 탐구한다. 그녀는 예술철학에서의 ‘감각’과 ‘인식’, 심리학에서의 ‘감성’ 논의와 비교하면서, 무용창의성을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문화적 또는 예술적 생산품을 만들어 내는 능력”, “감각에 의한 경험으로서의 감성”을 “무용으로 형식화하려는 욕구”, “예술적 상상”에 기초한 “창의성은 무용의 생산 조건이자 감상과 이해의 도구”¹³⁾라고 개념 정의하고 있다.¹⁴⁾

무용창의성을 탐구함에 있어서 오레지나는 무용 수행과 창작이란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고, 한혜리는 무용 창작과 감상이란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오레지나와 한혜리의 연구는 예술가와 예술작품 중심의 창의성 이해라 볼 수 있다. 오레지나와 김경은·안문경의 연구는 현장 전문가, 실천가들의 의견에 기초한 귀납적 방식의 질적연구이다. 오레지나의 연구는 대학 무용전공자이면서 동시에 무용수, 안무가로서 작품 활동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과 무용교육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관점에서 무용 창의성 요인을 탐색, 확인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구별된다. 오레지나와 한혜리의 두 연구는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통해 무용창의성의 개념과 특성을 예술 창작, 수행, 결과 산출 측면에서 도출해 낸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며, 이후 2010년대까지 무용창의성 관련 연구들에서 주요 참고문헌으로 지속적으로 인용되고 있다. 오레지나, 김경은·안문경, 한혜리의 무용창의성 개념과 요인 연구들은 무용가, 안무가를 전문적인 지식과 훈련, 신체 역량이 겸비된 탁월한 존재임을 전제하고 있다. 이는 비범한 역량을 지닌 개인 예술가의 속성으로서의 창의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II장 존 데이시와 캐슬린 레논의 창의성에 대한 두 번째 유형 논의를 반영하고 있다.

2. 무용창의성 검사 도구 개발

무용창의성 향상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검사 도구를 개발하거나, 또는 타 분야에서 이미 개발된 검사 도구를 무용 분야에 적용 가능anz를 탐색한 연구로는 2편이 있다. 이는 2010년대 초반에 출간되었다. 박영하(2011)는 무용창의성의 개념을 “풍부한 상상력과 사고력”, “무용 지식을 기초로 감각하고 느끼고 반응하여 새로운 것,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고 가치를 부여하는 능력”이라고 논의하고,¹⁵⁾ 유아창의성 검사 TCAM(Thinking Creatively in Action and Movement)을 즉흥무용 요소와 연계해 논의한다. TCAM의 창의성 영역(독창성, 상상력, 유창성), 김재은(2007)의 무용창의성 4가지 요소(다양성, 상상, 구성, 즉흥),¹⁶⁾ C. 피터(C. Peter, 2007)의 행동-기반 창의적 인지과정,¹⁷⁾ 오레지나(2008)의 무용창의성 요인,¹⁸⁾ 김화숙(2007)의 즉흥무용교육 논의¹⁹⁾와의 상호관계와 공통점을 탐색해 TCAM이 무용창의성 측정에 적절하다고 주장한다.²⁰⁾ 박영하의 연구가 비전공자 일반 ‘유아’의 무용창의성 측정에 주목했다면, 오레지나의 연구는 무용전공 청소년 및 대학생의 무용창의성 진단에 주목하고 있다. 오레지나(2012)는 자신의 2006년 선행연구²¹⁾에 기초해 만든 무용창의성 예비검사 평가문항을 가지고 78명의 무

13) 한혜리(2008), 무용에서의 감성과 창의성의 개념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지』 19(2), p.12.

14) 앞의 글, pp.1-12.

15) 박영하(2011), 무용창의성 측정을 위한 TCAM, 『무용예술학연구』 32, p.33.

16) 김재은(2007), 『창의성과 무용교육』, 서울: 한학문화사(박영하(2011), p.39 재인용).

17) Peter, C. (2007), *The Creative Action Theory of Creativity*, Oxford University Press(박영하(2011), p.38 재인용).

18) 오레지나(2008), 무용영재교육과정의 탐색, 『한국무용교육학회지』 19(1), pp.23-38(박영하(2011), p.42 재인용).

19) 김화숙(2007), 창의성과 즉흥무용 교육의 관계 탐색, 『한국무용교육학회지』 18(2), pp.1-20.

20) 박영하(2011), pp.25-47.

용전공 중고교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창의성을 평가하였다. 그리고 이를 무용(교육)경력 20년 이상의 전문가 3명과 협의한 이후 SPSS(12.0) 활용을 통해 신뢰도를 검증한 후, 무용창의성 검사지를 최종 제시하였는데 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²²⁾

<표 1> 무용창의성 검사지²³⁾

평가 변인		평가 척도			점수				
무용 사고력	상상력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상상력이 풍부하다		
	주관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주관이 명확하다		
	사고가 논리적이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사고가 논리적이다		
미적 표현	심미적 감각	미적 감각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미적 감각이 있다	
		감정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감정이 풍부하다	
		몰입을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몰입을 잘 한다	
	무용작품 구성능력	표현이 자연스럽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표현이 자연스럽다	
		통일감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통일감이 있다	
		변화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변화가 많다	
		끊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전체적인 흐름이 있다	

중 합 의 건

<표-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오레지나(2012)가 제시한 무용창의성 측정 기준 10개는 상상력, 주관, 논리적 사고력, 미적 감각, 감정, 몰입, 표현, 통일감, 변화, 흐름이며, 각 항목은 5단계의 척도로 평가된다. 이는 모더니즘 맥락에서의 무용 활동의 결과물이나 무용작품을 평가할 때 첫 단계에서 창의성을 진단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무용이란 인간의 감정이나 내면세계를 움직임으로 표현하는 것’, ‘좋은 작품이란 논리적인 기승전결 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 ‘작품이란 예술가의 개성과 몰입, 독창성의 산물이다’란 모더니즘 담론을 전제로 할 때, 적용 가능할 것이다. 오레지나가 개발한 무용창의성 검사 평가표는 이후 후속 연구들에서 주요 기준으로 인용, 활용되고 있다. 약 6년 이상에 걸쳐 지속 발전된 그녀의 무용창의성 연구들은 일련의 후속 연구들을 활성화 시키면서 국내 무용교육 분야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 다원주의, 탈권위, 탈중심, 경계해체 맥락에 기초한 무용작품 활동에 대해 창의성을 측정할 때에는 논리적 사고력, 감정, 표현, 통일감이란 항목으로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포스트모더니즘 그 자체가 모더니즘의 규범들을 의도적으로 깨뜨리고 기존 인식을 해체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더니즘 체계를 허물어뜨리는 그 지점들이 바로 창의성이 실현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박영하(2011)의 연구는 명료한 언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유아의 무용창의성을 진단해 볼 수 있는 검사 도구를 제안하고, 타 학자들의 논의와 비교, 검토함으로써 이것이 타당함을 보여주고 있다. 박영하, 오레지나의 연구들은 창의성이 무용교육을 통해 향상될 수 있고, 이것이 인지행동 심리학 도구를 통해 측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II장 데이시와 레논의 창의성에 대한 3번째 유형 논의를, 특히 ‘교육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반영하고 있다.

21) 오레지나(2006a), 무용창의성의 본질에 대한 이론적·경험적 탐색,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2) 오레지나(2012), 무용창의성 검사 개발,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3(1), pp.155-170.

23) 앞의 글, pp.166-167.

3. 무용 교육/활동 참여와 창의성 향상 논의

일정 기간 동안 무용활동, 무용교육에 참여함으로써 창의성이 증진될 수 있음을 주장한 연구로는 18편이 있다. 이는 3가지 유형으로 다시 세분화 될 수 있다. 첫째, 특정 대상을 선정하고, 이를 위한 무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일정 기간 동안 실행한 이후, 특정 검사지를 활용해 무용교육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여 무용이 창의성 증진에 기여함을 증명하는 연구이다. 교육 대상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유아, 초등학교, 중학생, 대학생, 일반 성인 대상으로 구분된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무용교육 연구로는 7편이 있는데, 이를 도표로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유아 대상 무용교육 연구²⁴⁾

	이옥은 (1999)	변재경 외(2005)	서지혜 외(2005)	이선화 (2006)	신정숙 외(2007)	조은영 (2007)	서재성 외(2009)
대 상	유치원생 80명(실험집단 40명, 통제집단 40명)	어린이집 만 4~6세 여자 30명(실험집단 15명, 통제 집단 15명)	유치원 7세 144명(교사완 성형집단 37명+교사안내 형집단+통제집 단 40명)	유치원 5~6세 60명	유치원 3~5세 146명(실험집 단 65명, 통제집단 81명)	유치원 60명(실험집단 30명, 비교집단 30명)	유치원생 79명 (실험집단 38명, 통제집단 41명)
기 간 및 내 용	8주, 창작무용(신체, 공간, 시간, 흐름, 관계, 청각, 시각, 촉각)	40분 수업, 주 3회, 12주, 총 36회 창작 무용 (공간, 시간, 신체, 힘, 움직임), 1회 수업 (물놀이, 개념 탐구, 기술 개발, 창작, 마무리)	40분 수업, 주 3회, 8주 창작무용(신체, 공간, 시간, 힘, 즉흥표현, 상상표현)	1시간 수업, 주 2회, 9주, 총 16시간 창작무용(걷기, 누워서 다리 움직이기, 기차놀이, 꽃과 공주님 표현)	40분 수업, 주 2회, 총 12회, 무용치료(신체 인식, 자각, 자아개념 변화, 자기표현)	주 2회, 8주, 한국무용 (소고춤)	40분 수업, 주 2회, 23주, 라반움직임 이론 기반 무용수업
무 용 창 의 성 측 정	한국유아교육 원(1995)의 유아용창의성 검사지 ²⁵⁾	전경원(1999)의 유아종합창의 성검사(K-CCT YC) ²⁶⁾	Torrance(1990) 의 TTCT, ²⁷⁾ Schilling & Kiphard의 KTK 체력검사	연구자의 관찰과 판단	Wallach & Kogan(1945), Ward(1968)의 창의성 검사, Cohen(1974)의 채점기준, 창의성(유창성, 융통성, 독창 성) 검사, Bently & Yeatts(1974)의 자아개념검사 ²⁸⁾	전경원(1999a) ²⁹⁾ 의 유아종합창의 성검사(K-CCT YC)-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상상력	전경원(1999b) ³⁰⁾ 의 유아종합 창의성검사(K- CCTYC), Marsh & Richards (1994)의 신체자아개념 질문지 ³¹⁾ 수정판 황순각 (2000)의 유아 신체자아개념 측정도구 ³²⁾
통 계 자 료 분 석	SPSSWIN 통계처리, 오류검증, 이원변량분석(t wo-way ANOVA)	SPSS/PC+10.0 , t-test			t-검증	t-검증, SPSS12.0	이원반복측정 분산분석(2x2 ANOVA)

24) 이옥은(1999), 아동의 창작무용 학습과 창의성 발달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38(3), pp.959-968; 변재경, 권영훈(2005), 창작무용 프로그램이 유아의 창의성 및 신체표현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44(4), pp.715-723; 서지혜, 박상범, 임혜자(2005), 창작무용 활동이 아동의 창의성 및 운동능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무용교육학회지』 16(1), pp.43-77; 이선화(2006), 유아의 창의성 개발을 위한 무용교육 프로그램 모형연구, 『한국예술교육학회지』 4(1), pp.61-68; 신정숙, 이현림(2007), 무용치료 프로그램이 취학 전 유아의 창의성과 자아개념 향상에 미치는 효과, 『한국아동교육』 16(1), pp.297-307; 조은영(2007), 무용교육이 유아의 창의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예술교육연구』, 5(2), pp.79-91; 서재성, 김수경(2009), 라반 움직임교육에 근거한 유아무용 프로그램이 창의성과 신체적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0(2), pp.111-126.

〈표-2〉 유아 대상 무용교육 연구 7편은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약 10년 동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 연구들은 유치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들을 선정하고 이를 실험집단과 비교/통제집단으로 나누어 다음 무용 수업을 진행한 이후의 변화를 전경원, Torrance 등의 특정 검사지를 활용해 측정하고 통계처리 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또한 연구대상 학생 숫자 범위가 30명~146명, 수업 기간이 8주~23주라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창작무용 수업이 유아들의 창의성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했다’라는 동일한 결론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서지혜·박상범·임혜자(2005)의 연구는 교사안내형 집단에서 창의성 향상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유연성과 동적 평형성과 같은 체력이 발달되었다고 논의한다. 이러한 연구는 이전 연구들과 비교해 볼 때, 무용교육과 창의성의 상호관계를 탐구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연구대상 학생들의 ‘체력 수준’이란 항목을 추가하여 교육 이전과 이후에 측정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하겠다. 이선화(2006)의 연구는 특정 검사지를 활용하지 않고 연구자 이선화의 관찰과 판단에 기초해 창의성 향상을 검증하고 있다. 신정숙·이현림(2007)이 진행한 무용치료 프로그램은 신체 지각 및 표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선행연구들이 시행했던 창작무용 프로그램과 크게 다르지 않다. 두 연구자가 어떤 관점과 맥락에서 ‘무용치료’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지는 드러나 있지 않으나, 무용 활동과 수업의 효과로서 정서적 치료 효과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4편이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초등학교 대상 무용교육 연구³³⁾

	배소심 외(2000)	김미자 외(2003)	박혜리(2008)	김정하 외(2012)
대상	초등학교 5학년 71명	초등학교 6학년 70명(실험집단 35명,	초등학교 무용반 여학생 30명(실험집단	초등학교 2학년 50명(실험집단 25명,

- 25) 이옥은(1999)은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측정을 위해 빨간색 연상, 도형 완성, 상자 밀어내기 검사를 수행했고, 상상력 측정을 위해 동물 상상 검사를 수행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한국유아교육원(1995)의 문헌제목이 참고문헌 목록에서 제시되지 않고 있고, 본 연구자가 RISS와 네이버 전문정보 검색을 해 보아도 그 문헌은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옥은이 사용한 유아용 창의성 검사지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것의 원래 초기 형태가 무엇이며 누구에 의해 어떻게 수정, 보완되어 왔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옥은(1999), pp.961-962.
- 26) 이 검사는 “언어의 ‘빨간색 연상하기’, 도형의 ‘도형 완성하기’, 신체의 ‘동물 상상하기’와 ‘색다른 나무 치기’의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변재경·권영훈(2005), p.718.
- 27) E. D. Torrance(1990), *The Torrance Test of Creative Thinking: Norms-Technical Manual*, Bensenville, IL: Scholastic Testing Service, Inc. (서지혜·박상범·임혜자(2005), p.74 재인용).
- 28) M. A. Wallach, Kogan (1965), *Modes of Thinking in Young Children: A Study of the Creativity Intelligence Distinction*,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Ward, W. C. (1968), *Creativity in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31, pp.737-754; Cohen, S. (1974), *Exploratory Task Behavior & Creativity in Young Children*,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2(4), pp.262-267; Bently, E. I. & P. P. Yeatts (1974), *The Self Concept: Instructional Objectives, Curriculum Sequence & Criterion Referenced Assessment*, ERIC ED 096560(신정숙·이현림(2007), pp.297-307 재인용).
- 29) 전경원(1999a), 『유아 종합 창의성 검사 요강』, 서울: 학지사(조은영(2007), pp.79-91 재인용).
- 30) 전경원(1999b), 『유아 과학 교육』, 서울: 창지사(서재성·김수경(2009), pp.111-126 재인용).
- 31) H. W. Marsh, G. E. Richard(1994), *Physical Self-description Questionnaire*, *Journal of Sport & Exercise Psychology* 16, pp.270-305 (황순각(2001), 유아를 위한 신체적 자아개념 척도 연구, 『한국유아체육학회지』, 2(1), pp.33-45 재인용).
- 32) 황순각(2001), pp.33-45.
- 33) 배소심, 김인실(2000), 초등학교 고학년 창작무용 학습이 창의성 및 지능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성체육학회지』 14(1), pp.105-114; 김미자, 안은주(2003), 다매체를 이용한 단계적 창작무용 학습이 아동의 창의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초등교육』 14(2), pp.289-304; 박혜리(2008), 다중지능이론에 기초한 무용프로그램이 초등학교의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 『한국여성체육학회지』 22(5), pp.73-88; 김정하, 박현욱(2012), 한국의 문화: 예술통합교육, 무용이 초등학교의 창의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상과 문화』 62, pp.369-392.

		비교집단 35명)	15명, 통제집단 15명)	통제집단 25명)
기간 및 내용	주 3회, 16주. 실험집단-움직임, 표현, 작품 창작무용 수업. 비교집단-기존교육과 정(에어로빅, 댄스스포츠, 민속무용) 수업.	6주 시청각매체 활용 창작무용수업(신체디자 인, 움직임자각, 즉흥표현, 상상표현), 조별 작품창작 및 발표, 감상	1회 95분 수업, 주 3회, 3개월 무용수업 실시.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에 근거한 무용수업(소리 듣고 표현, 이미지 지도, 의식 춤, 모임과 흠어짐)	40분 수업, 주 1회, 19주, 예술통합교육기반 무용수업
무용창의성 측정	서울대 교육연구소의 초등학생 고학년 간편 창의성검사, 경북대 교육연구소의 전국표준화지능진단검 사	현대창의성연구소의 창의성검사(독창성, 유창성, 융통성, 정교성), 창의성표현영역(언어창 의성, 도형창의성, 창의성지수) 검사지	Khatena & Torrance(1976) ³⁴⁾ 의 WKOPAY와 창의성 5개 요인(권위수용, 자신감, 탐구심, 타인에 대한 의식, 적극적 상상력) 검사지	“전경원전경남(2008)의 초등도형 창의성검사 K-FCES” ³⁵⁾
통계 자료분석	변인별 t-검증, 이원변량분석(two-wa y ANOVA)	SPSS, t-test	SPSS Window Version 12.0, t-test	SPSS/WIN 18.0, 독립 t-test

〈표 3〉의 초등학생 대상 무용교육 연구 4편도 〈표 2〉의 유아 대상 연구들처럼 동일한 연구 패턴을 보이고 있다. 〈표 3〉의 연구들은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약 12년에 걸쳐 진행되었지만 여전히 교육기관 소속 학생들을 선정한 후, 실험집단과 통제/비교집단으로 나누고, 일정 기간 무용수업을 실시해 일어난 변화를 창의성 검사지를 선정해 측정하고 이를 통계 처리, 분석하고 있다. 유아에 비해 초등학생은 언어적 표현과 반응이 좀 더 명료하기에 〈표 2〉에서 사용되지 않았던, 여러 연구소들이 개발한 다양한 창의성 검사지를 활용하고 있다. 다음으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1편이 있다. 오현주(2015)는 중학생 240명을 대상으로 주 1회, 15주 동안 창작무용 수업을 진행하였다. 수업 내용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무용창작 관련 교재내용을 수정한 것으로 “설명 - 창작(연습) - 피드백 - 발표”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수업, 학습 결과물, 과제물을 분석하였고, 32명의 학생들과의 비구조화된 심층면담 2회와 설문지 조사를 분석하고, 무용전문가 5인과의 2차례의 회의를 거쳐 재검토한 결과 창의성이 향상되었다고 논의한다.³⁶⁾ 이러한 중학생 대상의 연구가 유아, 초등학생 대상 연구들과 비교해 볼 때 흥미로운 점은 상대적으로 매우 늦게, 즉 최근 2015년에 출간되었고, 상대적으로 적은 1편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런 현상의 원인이 유아, 초등학생, 중학생, 각 연령대에 따른 연구 수행의 수월성 문제인지, 적절한 교육콘텐츠 개발의 문제인지, 또는 약 3~4개월의 무용수업 효과 검증의 문제인지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오현주의 연구는 〈표 2〉, 〈표 3〉의 연구들과 달리, 학습 결과물과 심층면담을 통해 중학생들의 창의성 향상을 입증해 낸다는 점에서 진일보 하고 있다. 다음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4편이 있는데, 이를 정

34) J. Khatena, E. P. Torrance(1976), *Manual for the Khatena Torrance Creative Perception Inventory*, Chicago, IL: Stoelting(박혜리(2008), pp.73-88 재인용).

35) 김정하, 박현옥(2012), pp.379-380.

36) 오현주(2015), pp.79-102.

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대학생 대상 무용교육 연구³⁷⁾

	변재경 외(2010)	김나이(2012)	노은초(2015)	노은초(2016)
대 상	무용경험이 없는 체육학과 대학생 53명(실험집단 28명, 통제집단 25명)	안은미의 현대무용 수업 참여 (무용전공 아닌) 대학생 22명	무용과 대학생 19명(실험군 11명, 대조군 8명)	대학 무용전공자 17명
기간 및 내용	주 1회, 90분 수업, 15주, 창작무용수업(이미지, 운동, 군-구성, 주제-구성, 그룹 창작 발표)	주 1회, 2시간, 15주	발레 3시간, 주 1회, 15주, 자세 인식, 팔 동작, 점프, 착지, 턴, 창작 평가, 수업에 대한 보고서 작성/제출	15차시 발레수업(7주 동안 바가노바 메소드 발레 동작, 8주차 콤비네이션 사전 검사, 바솔라르의 상상력 연계 다양한 턴 동작 수행, 응용 동작, 발레동작 콤비네이션 사후 검사
무용 창의성 측정	Torrance(1990)의 TTCT 도형검사 B형을 사전에, A형을 사후에 사용. “창의성(유창성, 독창성, 제목의 추상성, 정교성, 성급한 종결에 대한 저항)” 검사	참여관찰, 심층면담, 개방형 설문조사	오레지나(2012)의 무용창의성 척도 검사, 학생들의 결과물, 심층면담 2회, 면담녹취자료, 관찰 기록, 비디오 녹화자료	오레지나(2012)의 무용창의성 검사(무용사고력 3문항, 미적표현 7문항)
통계 자료분석	SPSS/PC+Window 15.0, t-test		SPSS/PC+Windows 20.0, Wilcoxon's signed rank test, 비모수적 통계분석	통계 소프트웨어 R(Version 3.3.0), Wilcoxon's signed rank test, 비모수적 통계분석

<표 4>의 대학생 대상 연구들은 중학생 대상의 오현주 연구처럼 2010년대부터 진행되고 있는데, 이전 연구들과 다른 점은 수업 내용에 있어서 참여자 학생들의 신체적, 정서적, 지적 수준에 맞춘 좀 더 정교한 발레나 집단 창작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김나이(2012)의 연구가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에 근거해 창의성 향상 정도를 탐색하고 있다면, 나머지 3편의 연구들은 오레지나, Torrance 등의 창의성 검사지를 활용해 창의성을 측정하고 있다. 노은초(2015)의 연구는 학생들의 글쓰기 수업을 창의성 향상을 위한 교육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구별된다.

둘째, 공연을 위한 무용 활동과 리허설 참여에 따른 창의성 향상 연구로는 1편이 있다. 위 첫 번째 유형의 연구들이 유아, 초등학생, 중학생, 성인들을 대상으로 무용교육을 일정 기간 실시하고 그들의 창의성 향상 정도를 검사지, 설문 등을 통해 탐색했다면, 조기숙·차경천(2011)은 뉴발레 「백조의 호수 - 사랑에 반(反)하다」(2008), 「백조의 호수 II - 사랑에 취(醉, 取)하다」(2009), 「백조의 호수 III - 사랑에 빈(貧, 份)하다」(2010) 공연을 위해 특별출연자 기업 경영인 12명과 함께 연습 및 리허설, 공연을 행하고,

37) 변재경, 박순희, 정수정(2010), 창작무용 프로그램이 대학생들의 창의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1(2), pp.39-53; 김나이(2012), 현대무용을 통한 창의성 가르치기, 『한국무용기록학회지』 26, pp.1-21; 노은초(2015), 무용전공자들의 무용학적 글쓰기가 창의성 향상에 미치는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6(3), pp.183-201; 노은초(2016), Bachelard, G. 의 상상력 원리를 적용한 발레수업이 무용창의성 개발에 미치는 영향,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7(3), pp.73-90.

이후 그들의 창의성 향상과 창조경영에 대한 영향을 심층면담에 근거해 탐색하였다. 경영인들은 무용에 참여함으로써 도전정신, 해체와 재구성, 탐구, 상상력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는 창의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또한 예술과 경영을 교차 적용해 이해하게 되면서 창조경영 전략으로 연계, 발전시킬 수 있었다고 두 연구자는 논의한다.³⁸⁾

셋째, 무용 참여에 따른 창의성 증진에 관한 연구들을 재검토한 문헌 연구로는 1편이 있다. 유혜경(2009)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무용, 창의성, 정서적 지능, 사회성으로 검색해 나온 1990년에서 2008년까지 출간된 석·박사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 60편을 대상으로 각각의 연구 방법과 주요 내용을 탐구하고, 기존 연구들이 창의성 측정 방식에 있어서 연구참여자인 학생들 스스로 보고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창의성 향상에 기여한 무용교육의 중요성을 더욱 드러내기 위해서는 (창의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다른 요인들(부모 학력과 경제력, 학생의 지능, 가족 환경, 타 예술교육 등)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³⁹⁾ 이러한 유혜경의 연구는 II장 데이시와 레논의 창의성에 대한 3번째 유형 논의에서 언급된 미시 사회적 차원인 개인과 가족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창의성 향상의 주요 변인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무용교육/활동이 창의성 향상에 기여했음을 주장한 논문들 중에서 연구대상을 살펴보면 유아, 초등학생, 중학생, 대학생, 일반 성인이 있다. 각 연구대상별 논문 편수를 순서대로 살펴보면, 유아 대상 연구(7편), 초등학생 대상 연구(4편), 대학생 대상 연구(4편), 중학생 대상 연구(1편), 성인 대상 연구(1편)이다. 그 중 유아 대상 연구가 7편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비해 중학생 대상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1편에 불과하고, 고등학생 대상 연구는 전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대학 입시 위주의 중·고등학교 교육 시스템이 예체능 계열 수업을 소홀히 하는 현실에서는 연구자가 연구대상자들, 소속 학교 교장과 교사의 동의를 얻어 무용교육을 실시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위 연구들은 창의성 증진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도구로 K-CCTYC, TTCT, WKOPAY, K-FCTES가 주로 활용하고 있고, 자료 분석 및 통계에 있어서는 SPSS, t-test, ANOVA 등을 사용하고 있다. 일부 연구자들이 연구의 제한점에서 논의하듯, 12 ~ 16주라는 기간 동안에 창의력 향상이 대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 향상 정도가 괄목할 정도는 아니기에 수업 기간을 장기화 할 필요가 있다.⁴⁰⁾ 오현주(2015)의 연구는 국내외 학자들이 개발한 기존의 창의성 검사지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가 직접 수업, 학습 결과물, 과제물을 분석하고 비구조화된 심층면담과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는 점에서 타 연구들과 구별되고 있다. 오현주의 연구를 제외한 위 16편의 연구들은 연구참여자 선정, 사전 검사, 무용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사후 검사, 자료 분석, 결과 도출이란 단계를 공통적으로 거치고 있다. 또한 무용을 통한 창의성 향상을 과학적,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교육학, 심리학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검사지들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3. 무용 교육/활동 참여와 창의성 향상' 연구들은 앞서 논의된 '2. 무용창의성 검사 도구 개발' 연구들이 다양한 대상으로 확대 발전된 사례들이며, II장 데이시와 레논의 창의성에 대한 3번째 유형 논의에서 창의성이 교육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향상될 수 있고 인지행동 심리학 도구를 통해 측정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38) 조기숙, 차경천(2011), 향상되는 창의성, 『대한무용학회논문집』 66, pp.155-181.

39) 유혜경(2009), pp.249-270.

40) 배소심, 김인실(2000), p.112.

4. 창의성에 대한 철학, 교육학 이론 고찰과 무용 연계 영역 탐색

3편의 연구가 창의성에 대한 타 학문분야의 논의를 무용에 적용하여 무용창의성 논의를 확장시키고 있다. 박영하(2012)는 과학철학자 가스통 바슐라르(Gaston Bachelard)의 상상력(형태적 상상력, 물질적 상상력, 역동적 상상력, 원형적 상상력) 논의를 소개하고 무용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을 탐색한다. 즉, 바슐라르의 ‘이미지의 변형’ 논의는 수잔 랭거(Susan K. Langer)의 ‘지시’ 및 ‘함축’ 논의와 비슷하며, 주체와 대상이 일치되는 역동적 상상력은 무용에서의 몰입상태와 주관적 판단과 가치 부여는 상상력에 근거한 예술창작활동과 연결될 수 있다고 말한다.⁴¹⁾ 이후 박영하(2015)는 미술, 음악, 동작, 문학, 놀이교육으로 구성된 발도르프의 유아교육과정을 소개하고, 발도르프 동작교육의 오이리트미(Eurythmy) 부분을 오레지나(2006b)의 무용창의성 요인과 비교하여 상호연관성을 분석한다. 즉, 오이리트미의 동작감각, 동작수용력, 신체조절능력, 심신조화는 오레지나가 제시한 움직임 감각과 유사하며, 감수성, 미적 감각, 음악성, 정서는 심미적 감각과 유사하고, 동작표현, 동작화 능력, 신체표현, 표현 능력은 무용표현력과 유사하며, 상상력, 이해력, 주관, 탈정형성, 통찰력, 유창성, 아이디어, 독창성은 무용사고력과 유사하기에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오이리트미에서 자음과 모음 발성과 움직임 수행은 다양한 감정 표현과 내적 의미로 발전될 수 있기에 무용창의성 증진에 효과적이라고 논의하고 있다.⁴²⁾ 조선영(2017)은 교육학자 키렌 이건(Kieran Egan)의 ‘상상력’ 이론을 소개하고 이를 무용에 적용하여 무용창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탐색한다.⁴³⁾ 이건은 오늘날 학교교육 문제들이 해결되려면 ‘신체적 이해’, ‘신화적 이해’, ‘낭만적 이해’, ‘철학적 이해’, ‘반어적 이해’란 5가지 측면에서 상상력을 개발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⁴⁴⁾ 조선영은 이건의 상상력 개발 주장을 무용에 접목시켜 각 단계별로 신체를 통한 상상력, 감성, 역동적 힘과 에포트, 자기 주도적 사고력과 연결될 수 있다고 논의하면서 이건의 논의를 무용창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인지도구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⁴⁵⁾ 이러한 3편의 연구는 상상력과 창의성에 대한 20세기 과학철학, 유아교육, 교육학 분야 전문가의 이론을 소개하고 무용과 연계해 무용창의성 이론을 재정립 하는 다양한 시도라 볼 수 있다. 이는 2012년부터 나타나고 있으며, 무용창의성에 대한 논의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재)탐색 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성과가 있다 하겠다.

5. 무용의 교육적 가치와 창의성 향상에 대한 개괄적 논의

앞서 박영하(2012, 2015), 조선영(2017)이 창의성에 대한 타 학문 분야의 이론을 고찰한 후에 무용창의성과의 연계 방안들을 모색했다면, 다음 3편의 연구들은 특정 무용장르의 교육적 가치와 주요 내용을 먼저 살펴본 이후, 창의성과의 공통점 또는 향상으로 연계해 논의한다. 김화숙(2007, p.18)은 즉흥무용교육의 기본 내용을 “무용 요소에 의한 자극”, “감각적 자극”, “이미지 자극”, “도구를 이용한 자극”으로

41) 박영하(2012), 가스통 바슐라르의 상상력 철학과 무용창의성, 『대한무용학회논문집』 70(3), pp.17-39.

42) 박영하(2015), 무용창의성과 발도르프 교육, 『대한무용학회논문집』 73(6), pp.105-125.

43) 조선영(2017), 무용창의성 향상을 위한 키렌 이건의 상상력 이론 적용방안 연구, 『무용예술학연구』, 63, pp.105-121.

44) K. 이건(1988), 『상상력 교육: 미래의 학교를 디자인하다』, 김희용 외(역)(서울: 학지사, 2014)(조선영(2017), pp.105-121 재인용).

45) 조선영(2017), pp.105-121.

제시하고, 즉흥무용과 창의성은 새로운 방식의 생각하고 자아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유사하기에 창의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수단이 된다고 말한다.⁴⁶⁾ 안병순(2008)은 무용교육의 일반적 목표(신체적, 인지적, 정의적, 사회적 발달)를 즉흥무용의 미적 특성과 즉흥무용 교육에 나타난 창의성과 연계해 논의한다.⁴⁷⁾ 차수정(2011, pp.165-166)은 “한국무용의 교육적 특징은 역사적 이해, 한국문화에 대한 접근, 공동체적 특징, 자연성을 존중하는 춤”, “자기표현의 춤, 자기성찰, 음양조절, 절제, 인내 정서적” 특징, “호흡, 장단과 리듬의 조화, 대소(大小) 강·약 조절의 춤”, “조화, 중용의 미, 예의, 절제, 즉흥성, 흥과 멋, 선의 아름다움, 정중동의 미”이며, 이는 창의성(“확장과 전환, 풍부한 사고력, 독창적인 아이디어 및 표현의 무한한 가능성”)과 관련된다고 말한다.⁴⁸⁾ 앞서 ‘3. 무용 교육/활동 참여와 향상 논의’에서 살펴본 18편의 연구들이 무용창의성에 대한 귀납적, 경험적, 실증적 연구였다면, 김화숙(2007), 안병순(2008), 차수정(2011)의 연구는 보편적, 개괄적 연구라 할 수 있으며, 예술교육, 무용교육 그 자체가 창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일반적인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이는 예술과 창의성, 무용과 창의성의 밀접한 연관성은 당연한 것이라는 기존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

6. 무용지도자의 교수 유형과 학습자의 학습태도 및 창의성 관계 논의

무용 지도자의 역할과 자질이 학생의 창의성과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을 증진시키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설문 조사로 입증한 연구로는 3편이 있다. 정건진(2004)은 무용전공 대학생 40명을 대상으로 교사주도형 학습 집단과 자기주도형 학습집단으로 나누어 8주 동안 학습하게 한 이후 설문검사 및 이원변량 통계 처리하였다. 설문검사는 Torrance의 창의성 검사에 근거한 심리학자 김영채(1999)⁴⁹⁾의 표준화 창의성 검사지를 활용하였다.⁵⁰⁾ 창의성 향상 사전 검사로는 TTCT 도형B 검사지를, 사후 검사에는 TTCT 도형A 검사지를 사용하였고, 그 결과 “자기주도형 학습이 교사주도형 학습에 비해 자발성, 창의성, 통제성, 자기성취도에 효과적인 학습방법임이 나타났다”고 논의한다.⁵¹⁾ 정건진(2004)이 무용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했다면, 문정은·한광령·김우석(2014)은 임의표본추출된 여중생 300명을 대상으로 교사의 표현활동 지도 유형이 학생들의 무용정서와 창의성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설문 조사하였다. 세 연구자는 국내연구자들이 번안 활용했던 창의성 개발 측정(탐구적 몰입, 관계적 개방성, 독창적 유연성, 이타적 자아확신)을 활용하였고, Chelladurai & Saleh(1980)⁵²⁾의 수업 지도 행동 검사지를 표현활동 지도유형(민주적 행동형, 긍정적 행동형, 사회적지지 행동형, 교수·지시

46) 김화숙(2007), pp.1-20.

47) 안병순(2008), 즉흥무용 교육의 창의성 이론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47(6), pp.579-591.

48) 차수정(2011), 창의성 함양을 위한 한국무용의 교육적 가치, 『무용예술학연구』 33, pp.153-174.

49) 김영채(1999), 『창의적 문제해결』, 서울: 교육과학사(정건진(2004), 무용교육에서의 창의성 향상을 위한 자기 주도적 학습의 효과, 『예술교육연구』 2(1), pp.43-53 재인용).

50) 이 검사지에는 “창의성 구성요인 5개(유창성, 독창성, 정교성, 제목의 추상성, 성급한 종결의 저항), 창의적 지수, 창의적 강점의 13개 요인(정서적 표현, 이야기의 명료성, 운동 또는 행위, 제목의 표현성, 불완전한 도형들의 조합, 원들의 조합, 독특한 시각화, 내적인 시각화, 경계의 확대, 유우머, 심상의 풍부함, 심상의 다채로움, 환상)”이 포함되어 있다. 정건진(2004), p.45.

51) 앞의 글, p.52.

52) P. Chelladurai, S. D. Saleh(1980), Dimensions of Leader Behavior in Sports: Development of a Leadership Scale,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2(1), pp.34-45; 유진, 김중오(2002), 한국형 운동-정서 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검증,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3(2), pp.103-117(문정은, 한광령, 김우석(2014), 중등학교 표현활동 지도유형에 따른 무용정서가 창의성 개발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23)1, pp.377-393 재인용).

형)으로, 유진·김종오(2002)의 한국형 운동정서 척도를 무용정서(재미, 금지, 활력, 성취, 정화)로 수정해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적, 긍정적 지도, 사회적 지지와 같은 교사의 지도 방식이 학생들의 정서와 창의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밝혀내고 있다.⁵³⁾ 임선영·이은미·김한별(2015)은 유의표집된 무용전공 고교생과 대학생 52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여 무용지도자의 비전제시, 성장지원과 같은 서번트리더십(servant leadership)이 무용전공 학생들의 임파워먼트(empowerment)와 창의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세 연구자는 Russel & Stone(2002)의 서번트리더십, Thomas & Velthouse(1990)의 임파워먼트 논의(의미성, 역량, 영향력, 자기결정력), Zhou & George(2001)의 창의적 동기(호기심, 집중력 등), 창의적 태도(모험성, 도전성 등), 창의적 능력(지식, 상상력, 독창성 등) 논의⁵⁴⁾를 국내 연구자들이 변안 사용한 것을 설문지로 활용하고 있다.⁵⁵⁾ 이러한 3편의 연구는 앞서 '3. 무용 교육/활동 참여와 향상 논의'에서 살펴본 18편의 연구들과 비교해 볼 때, 무용 창의성에 대한 귀납적, 경험적, 실증적 연구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그러나 정견진(2004), 문정은 외(2014), 임선영 외(2015)의 연구는 무용교육에 있어 지도자의 교수 방식과 역량이 학생의 적극적인 학습태도 및 창의성 향상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학생의 입장에서, 학생의 설문 응답을 통해 밝혀낸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구별된다. 또한 II장 데이시와 레논의 창의성에 대한 3번째 유형 논의에서 창의성과 교육 환경과의 상호작용 논의를 반영하고 있고, 무용을 통한 창의성 향상에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맥락과 요인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입증해 낸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에서 진일보 하고 있다 하겠다.

7. 무용수의 창의성에 대한 인지·신경과학적 접근

무용창의성에 대한 기존 연구들이 주로 예술철학, 교육학적 관점에서의 문헌연구와 설문조사, 심층면접 위주의 질적연구로 이루어졌다면, 2015년에 이르러서는 인지·신경과학적 접근의 연구가 새롭게 시도되었다. 고현정(2015)은 시공간 속 무용수의 움직임 수행과 뇌의 활동 및 회로 작동, 무용수의 창의적 사고력 및 통합적 지각 발달의 연관성을 논의하고 있다. 뇌와 신경, 신체, (무)의식, 지각, 감정, 이성, 감정, 지능, 상상력, 창의성의 상호관계에 대한 뇌과학자 및 신경생물학자들의 연구에 근거해, 오랜 기간에 걸친 연습과 훈련 경험, 그리고 무의식과 의식적 인지, 기억, 상상의 역동적 상호작용에 의해 무용수의 창의성이 증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⁵⁶⁾ 이는 창의성의 작동과 발달 과정을 서구 전문가들의 과학적 실험 결과와 연계해 무용수 신체의 내적, 외적 측면에서 탐색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구별된다. 또한 II장 데이시와 레논의 창의성에 대한 3번째 유형 논의 중 생물학적, 인지적 요인들의 누적과 작동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고현정의 연구는 무용창의성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무용연구자와 인지과학, 뇌과학, 의학 연구자들과의 학제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53) 문정은, 한광령, 김우석(2014), pp.377-393.

54) Russel, F. Robert and A. Gregory Stone(2002), A Review of Servant Leadership Attributes: Developing a Practical Model, *Leadership & Organization Development Journal* 23(3), pp.145-157; Thomas, W. Kenneth and Betty A. Velthouse(1990), Cognitive Elements of Empowerment: An "Interpretive" Model of Intrinsic Task Motiva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5(4), pp.666-668; Zhou, Jing and Jennifer M. George(2001), When Job Dissatisfaction Leads to Creativity: Encouraging the Expression of Voic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44(4), pp.682-696(임선영, 이은미, 김한별(2015), 무용지도자의 서번트리더십이 무용전공학생들의 임파워먼트 및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24(2), pp.1005-1015 재인용).

55) 임선영, 이은미, 김한별(2015), pp.1005-1015.

56) 고현정(2015), 무용수의 통합적 지각과 창의성 뇌 발달의 잠재성 고찰,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6(1), pp.23-47.

8. 창의성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

기존 연구들이 무용창의성의 본질이 이미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구성 요인들을 발굴, 탐색해 왔다면, 김수인의 2편의 연구는 무용창의성 개념이 역사적으로 형성, 발전되어 왔음을 주장한다. 김수인(2017a)은 예술시장 맥락에서 무용창의성에 접근한다. 즉, 예술창의성은 고대, 중세, 르네상스 시대 초기에는 중요시 되지 않았지만, 르네상스 시대에 본격적으로 접어들면서 예술시장이 등장하게 되고 예술가들의 개성과 표현이 인정받게 되면서, 그리고 19세기, 20세기에 개인의 '자유로운 창조'라는 개념이 정착되고, 칸트의 '무관심성'과 미적 자율성 논의가 확산되면서 예술창의성이 중요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무용의 경우, 20세기 초 현대무용의 시작과 발전과 더불어 순수예술, 극장무용으로 간주되면서 무용가 개인의 창작, 안무, 창의성이 중요하게 되었다고 김수인은 논의하고 있다.⁵⁷⁾ 또한 예술창의성 담론은 20세기 중후반부터는 대학교와 정부의 영향 아래 발전되어 왔음을 김수인(2017b)은 주장한다. 대학은 전공 개설 및 교과과정을 통해 예술에 대한 지식을 발전, 확산시켜 왔고, 정부는 예술가와 시민들을 위한 문화복지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창의성 담론에 개입해 왔다는 것이다.⁵⁸⁾ 그녀의 두 연구는 예술과 무용 창의성에 대한 현대인들의 당연한 인식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좀 더 큰 맥락에서 다각도적으로 살펴볼 것을 제안하고 있다. 세계사, 미학·철학사적 측면에서 예술의 개념과 영역의 변화, 예술가의 개성과 창의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출현과 이에 따른 창의성 담론의 구축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II장 테이시와 레논의 창의성에 대한 3번째 유형 논의 중 거시 사회적 차원인 정치, 경제적 요인들과 창의성의 상호작용을 드러내고 있다.

IV. 나가는 말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메타분석에 근거해 국내 무용학에 나타난 창의성 논의 양상과 그 의미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창의성에 대한 서양 일반 학계의 논의는 고대 시대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있다.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영감에서 비롯된 창의성, 천재 예술가 개인의 탁월한 능력으로서의 창의성, 생물·심리·사회학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발될 수 있는 일반인의 창의성, 경제적 가치 창출과 연계된 창의성, 집단·조직의 통제 기제로써의 창의성 등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반면, 무용 분야에서 창의성은 20세기 초 현대무용이 등장하면서 안무가의 독창적인 창작 방식이 중요시 되어 진지한 예술로서 논의되었고, 20세기 말에 이르러서는 창의성이 서구 백인 엘리트의 순수예술을 설명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근거로써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국내 무용학에 나타난 창의성 논의 양상은 무용에서의 창의성 개념 및 요인 연구, 무용창의성 검사 도구 개발, 무용 교육/활동 참여와 창의성 향상 논의, 창의성에 대한 철학, 교육학적 이론 고찰과 무용 연계 영역 탐색, 무용의 교육적 가치와 창의성 향상에 대한 개괄적 논의, 무용지도자의 교수 유형

57) 김수인(2017a), pp.55-76.

58) S. I. Kim(2017b),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Creativity and Social Systems, *The Korean Journal of Dance Studies* 65(3), pp.67-86.

과 학습자의 학습태도 및 창의성 관계 논의, 무용수의 창의성에 대한 인지·신경과학적 논의, 창의성에 대한 사회학적 논의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 대다수는 개별 사례에 주목해 무용을 통한 창의성 향상을 입증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탁월한 개인이 지닌 창의성을 본질화 하거나, 개인과 교육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향상될 수 있는 창의성, 인지 심리학적으로 측정될 수 있는 창의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창의성에 대한 국내 무용학계의 논의는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 되었으며, 주로 무용 교육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다. 비전공자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무용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연구에 비해, 무용전공 중고교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무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연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는 대학 입시 위주의 중고교 교육 환경에서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 또한 무용교육 이전과 이후, 창의성 향상 정도가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는 연구 대상이 비전공자 집단이라는 점이 연구자들의 연구 대상 선정에 영향을 끼쳤으리라 생각한다. III장에서 살펴본 연구들은 무용 경험이 참여자의 창의성 향상에 기여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무용학 발전과 확산에 기여해 왔다고 생각한다. 2010년대 중반부터 창의성에 대한 인지·신경과학적 연구와 사회학적 연구가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데, 이는 무용 창의성을 둘러싼 다양한 맥락을 고찰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35편의 논문들은 1999년 이후 출간되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는 본 연구자가 사용한 RISS 검색 결과인 KCI 등재지이기도 하지만, 국내 무용학 발전의 한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국내에서 무용(학)은 1960년대부터 대학이란 고등교육 시스템으로 진입해 하나의 학과, 전공, 학문으로 발전해 오고 있다. 또한 국내 최초 무용과 박사과정이 1999년 용인대에서 신설된 이후, 현재 약 10 여개 이상의 대학에서 무용학 박사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대학 무용과 체제는 무용(학) 전문가를 양성, 배출해 내고 있고, 이들의 관심사와 연구 성과들은 등재학술지 논문 형태로 출간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1999년 이전에 출간된 무용창의성 관련 논문들을 다루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지만, 만일 그 논문들을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본 연구의 결과는 동일했으리라 생각한다.

본 연구가 무용계에 던지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용창의성 측정 도구와 방법이 다각도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모더니즘 맥락과 연계된 순수예술, 표현예술, 무대예술 중심의 관점에서 창의성을 이해할 뿐 아니라, 좀 더 큰 맥락에서 역동적 관계 속에서 창의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2005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설립된 이후 예술강사, 문화예술교육사 제도가 확산되고 있고, ‘문화예술교육으로서의 무용교육’이 실시되면서 무용(예술)의 개념과 영역이 확장되고, 일상생활과 연계된 다양한 무용이 실천되고 있는데, 창의적 사고, 실천 과정, 결과물 등을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창의성의 공통 요인을 도출해 일종의 표준화된 기준을 사용할 수 있지만, 창의성의 개념과 논의가 각 시대와 사회 환경에 따라 변화해 오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참여자의 현재 창의성에 영향을 끼친 내재적, 외재적 요인들을 심층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⁵⁹⁾ 창의성이 향상된 개인은 호르몬, 신경세포, 뇌의 작동과

59) 이와 비슷한 논의는 2000년대부터 교육학, 심리학 분야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즉, 창의성 측정 방법의 다양성, 장단점 비교 논의, 비판적 성찰, 대안 탐색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창의성의 개념과 구성 요인이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르기에, 연구 목적과 영역에 따른 창의성 검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연구들에서 나타난다. 이신동(2001), 창의성 검사에 대한 심리측정학적 접근의 한계와 대안, 『창의력교육연구』 4(1), pp.57-72; 박춘성, 김진희(2017), 창의성 측정방법에 대한 비교, 『한국홀리스틱교육학회지』 21(1), pp.63-78.

인지, 누적된 무의식, 가족 내 양육 방식, 종교, 직업 등에서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무용연구자와 타 학문분야 연구자들과의 학제적 연구는 이를 해결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무용의 개념과 영역을 확대하고 창의성과 연계될 수 있는 다양한 부분들을 더욱 탐색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융복합 창의인재 양성에 무용이 어떻게 핵심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한 다각도적 논의가 필요하다. 라반의 신체, 시간, 공간, 에포트 개념은 오늘날 가상 공간과 가상 움직임 연계 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주요 근거가 되리라 생각한다.

셋째, 타 학문 분야의 창의성 연구들을 활용함에 있어서 비판적인 재검토와 주체적인 사용이 필요하다. 기존의 무용 창의성 연구들은 인접 분야 학문의 창의성 논의들을 가져와 무용에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타 분야 창의성 논의들이 어떤 지점에서 열띤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경쟁하고 있는지 그 맥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용의 특수성을 반영하면서도 타 학문과 소통, 교류가 가능한 학술적 용어, 논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넷째, 국내 무용계 교육환경은 어떠한지, 창의성 증진을 위한 교과과정, 교육목표와 내용, 교수법 등이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 성찰해야 할 것이다. 국내 무용계의 권위적인 도제식 교육, 무용테크닉 중심의 반복 훈련이 무용계에서 우수한 창의인재를 양성하지 못해 왔다는 한계점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무용 실기 테크닉의 반복 학습과 수행 위주의 수업에서 벗어나 전공자들의 정서적, 지적, 지각적 역량을 예술적 감성과 결합해 발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앞서 정경진(2004), 문정은·한광령·김우석(2014), 임선영·이은미·김한별(2015)이 논의했듯이, 지도자의 민주적, 긍정적 지도와 사회적 지지, 비전 제시와 성장지원, 서번트리더십은 학생들의 창의성 발달에 큰 역할을 한다. 현장의 교육자들은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무용교육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무용을 통한 창의성 향상 방안을 모색할 때, 당대 사회의 주요 쟁점과 연계해 다양한 방식으로 실천해야 할 것이다. 글로벌 다문화 사회 속 상호 소통과 이해, 지역성 연계 문화예술교육 및 인성교육 연계 대학 교양교육 개발은 한국 사회의 주요 이슈이다. 동서양 문화에 대한 폭넓고도 균형 잡힌 이해, 자문화와 타문화의 비교문화적 이해와 상호 존중을 증진시키는 무용교육 프로그램 개발,⁶⁰⁾ 미술관·박물관에서 지역의 역사와 특성을 반영한 움직임 기반 통합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⁶¹⁾ 대학 교양과목에서 자아 정체성 탐색을 위한 신체 움직임 개발과 교수자와 학습자의 지속적인 소통 활성화⁶²⁾는 무용 창의성의 중요성과 복합성을 드러내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타 분야와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무용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방안들을 실천해 나가야만 국내 무용계가 더욱 발전하리라 생각한다.

60) 박정선(2017), 대학교 무용학과 교과과정 내 다문화 무용 교과목 개발에 관한 연구, 『무용예술학연구』 64, pp.1-24.

61) 서예원(2017), 미술관, 박물관의 신체표현 중심 통합 예술교육 프로그램 탐색, 『무용예술학연구』 64, pp.39-53.

62) 오문자(2017), 대학 교양무용교육을 통한 소통과 성장, 『한국무용예술학회 제 22차 학술발표회 ‘무용예술에서의 창의성’ 자료집』.

■ 참고문헌

- 김영채(1999). 『창의적 문제해결』. 서울: 교육과학사.
- 김재은(2007). 『창의성과 무용교육』. 서울: 한학문화사.
- 데이시, 존 & 캐슬린 레논(1998). 『창의성의 이해』. 이신동 외 역. 서울: 박학사, 2009.
- 이건, 키렌(1988). 『상상력 교육』. 김회용 외 역. 서울: 학지사, 2014.
- 전경원(1999a). 『유아 종합 창의성 검사 요강』. 서울: 학지사.
- 전경원(1999b). 『유아 과학 교육』. 서울: 창지사.
- Bently, E. I. and P. P. Yeatts (1974). *The Self Concept: Instructional Objectives, Curriculum Sequence & Criterion Referenced Assessment*. ERIC ED 096560.
- Khatena, J. and E. P. Torrance (1976). *Manual for the Khatena Torrance Creative Perception Inventory*. Chicago, IL: Stoelting.
- Peter, C. (2007). *The Creative Action Theory of Creativity*. Oxford University Press.
- Torrance, E. D. (1990). *The Torrance Test of Creative Thinking. Norms-Technical Manual*. Bensenville, IL: Scholastic Testing Service, Inc.
- Wallach, M. A. and Kogan (1965). *Modes of Thinking in Young Children: A Study of the Creativity Intelligence Distinction*.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 고현정(2015). 무용수의 통합적 지각과 창의성 뇌 발달의 잠재성 고찰.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6(1): 23-47.
- 김경은, 안문경(2007). 무용 안무의 창의성에 대한 질적 탐색. 『한국무용과학회지』, 14: 75-83.
- 김기홍(2013). 창의성의 사회적 본성과 문화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 『인문학연구』, 93(4): 5-28.
- 김나이(2012). 현대무용을 통한 창의성 가르치기 - 창의적인 교수 방법을 통한 창의성 학습. 『한국무용기록학회지』, 26: 1-21.
- 김미자, 안은주(2003). 다매체를 이용한 단계적 창작무용 학습이 아동의 창의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초등교육』, 14(2): 289-304.
- 김수인(2017a). 사회적 구성체로서 예술 창의성 개념에 대한 고찰: 순수예술개념의 형성과 무용의 편입과정을 중심으로. 『대한무용학회논문집』, 75(1): 55-76.
- 김정하, 박현옥(2012). 한국의 문화: 예술통합교육, 무용이 초등학생의 창의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만나기 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사상과 문화』, 62: 369-392.
- 김화숙(2007). 창의성과 즉흥무용 교육의 관계 탐색. 『한국무용교육학회지』, 18(2): 1-20.
- 노은초(2015). 무용전공자들의 무용학적 글쓰기가 창의성 향상에 미치는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6(3): 183-201.
- _____(2016). Bachelard, G. 의 상상력 원리를 적용한 발레수업이 무용창의성 개발에 미치는 영향.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7(3): 73-90.
- 류지은, 윤세준, 채연주(2016). 조직의 통제기제로서의 창의성 담론에 대한 탐색적 연구. 『경계와

- 사회』, 111: 237-268.
- 문정은, 한광령, 김우석(2014). 중등학교 표현활동 지도유형에 따른 무용정서가 창의성 개발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23)1: 377-393.
- 박영하(2011). 무용창의성 측정을 위한 TCAM. 『무용예술학연구』, 32: 25-47.
- _____ (2012). 가스통 바슐라르의 상상력 철학과 무용창의성. 『대한무용학회논문집』, 70(3): 17-39.
- _____ (2015). 무용창의성과 발도르프 교육 - 오이리트미 동작교육을 중심으로. 『대한무용학회논문집』, 73(6): 105-125.
- 박정선(2017). 대학교 무용학과 교과과정 내 다문화 무용 교과목 개발에 관한 연구. 『무용예술학연구』, 64: 1-24.
- 박춘성, 김진희(2017). 창의성 측정방법에 대한 비교.. 『한국홀리스틱교육학회지』, 21(1): 63-78.
- 박혜리(2008). 다중지능이론에 기초한 무용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 『한국여성체육학회지』, 22(5): 73-88.
- 배소심, 김인실(2000). 초등학교 고학년 창작무용 학습이 창의성 및 지능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성체육학회지』, 14(1), pp. 105-114.
- 변재경, 권영훈(2005). 창작무용 프로그램이 유아의 창의성 및 신체표현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44(4): 715-723.
- 변재경, 박순희, 정수정(2010). 창작무용 프로그램이 대학생들의 창의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1(2): 39-53.
- 서예원(2017). 미술관, 박물관의 신체표현 중심 통합 예술교육 프로그램 탐색. 『무용예술학연구』, 64: 39-53.
- 서재성, 김수경(2009). 라반 움직임교육에 근거한 유아무용 프로그램이 창의성과 신체적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0(2): 111-126
- 서지혜, 박상범, 임혜자(2005). 창작무용 활동이 아동의 창의성 및 운동능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무용교육학회지』, 16(1): 43-77.
- 신정숙, 이현림(2007). 무용치료 프로그램이 취학 전 유아의 창의성과 자아개념 향상에 미치는 효과. 『한국아동교육』, 16(1): 297-307.
- 안병순(2008). 즉흥무용 교육의 창의성 이론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47(6): 579-591.
- 오레지나(2006a). 무용창의성의 본질에 대한 이론적·경험적 탐색.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06b). 무용 창의성의 요인 분석. 『한국무용교육학회지』, 17(1): 205-222.
- _____ (2008). 무용영재교육과정의 탐색. 『한국무용교육학회지』, 19(1): 23-38.
- _____ (2012). 무용 창의성 검사 개발.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3(1): 155-170.
- 오문자(2017). 대학 교양무용교육을 통한 소통과 성장. 『한국무용예술학회 제 22차 학술발표회 ‘무용예술에서의 창의성’ 자료집』.
- 오현주(2015). 중학교 무용창작 수업에의 서사적 무용 통합에 대한 창의성 교육의 효과. 『대한무용

- 학회논문집』, 73(3): 79-102.
- 유혜경(2009). 무용이 한국 청소년의 창의성, 정서지능,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문헌고찰. 『대한무용학회논문집』, 60: 249-270.
- 이선화(2006). 유아의 창의성 개발을 위한 무용교육 프로그램 모형연구. 『한국예술교육학회』, 4(1): 61-68.
- 이신동(2001). 창의성 검사에 대한 심리측정학적 접근의 한계와 대안. 『창의력교육연구』, 4(1): 57-72.
- 이옥은(1999). 아동의 창작무용 학습과 창의성 발달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38(3): 959-968.
- 임선영, 이은미, 김한별(2015). 무용지도자의 서번트리더십이 무용전공학생들의 임파워먼트 및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24(2): 1005-1015.
- 정견진(2004). 무용교육에서의 창의성 향상을 위한 자기 주도적 학습의 효과. 『예술교육연구』, 2(1): 43-53.
- 조기숙, 차경천(2011). 향상되는 창의성 - 무용체험이 경영인의 창의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무용학회논문집』, 66: 155-181.
- 조선영(2017). 무용창의성 향상을 위한 키렌 이건의 상상력 이론 적용방안 연구. 『무용예술학연구』, 63: 105-121.
- 조은영(2007). 무용교육이 유아의 창의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예술교육연구』, 5(2): 79-91.
- 차수정(2011). 창의성 함양을 위한 한국무용의 교육적 가치. 『무용예술학연구』, 33: 153-174.
- 최보연, 김세훈(2014). 문화예술교육정책에서의 창의성 인식에 관한 비판적 연구. 『예술경영연구』, 30, pp.5-34.
- 한혜리(2008). 무용에서의 감성과 창의성의 개념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지』, 19(2): 1-12.
- 황순각(2001). 유아를 위한 신체적 자아개념 척도 연구. 『한국유아체육학회지』, 2(1): 33-45.
- Chelladurai, P., S. D. Saleh (1980). Dimensions of Leader Behavior in Sports: Development of a Leadership Scale.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2(1): 34-45.
- Cohen, S. (1974). Exploratory Task Behavior and Creativity in Young Children.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2(4): 262-267.
- Kim, S. I. (2017b).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Creativity and Social Systems. *The Korean Journal of Dance Studies*, 65(3): 67-86.
- Marsh, H. W., Richard, G. E. (1994). Physical Self-description Questionnaire. *Journal of Sport & Exercise Psychology*, 16: 270-305.
- Russel, Robert F., Gregory Stone A. (2002). A Review of Servant Leadership Attributes: Developing a Practical Model. *Leadership & Organization Development Journal*, 23(3): 145-157.
- Thomas, Kenneth W., Betty A. Velthouse(1990). Cognitive Elements of Empowerment: An “Interpretive” Model of Intrinsic Task Motiva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5(4): 666-681.

Ward, W. C. (1968). Creativity in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31: 737-754.

Zhou, Jing and Jennifer M. George (2001). When Job Dissatisfaction Leads to Creativity: Encouraging the Expression of Voic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44(4): 682-696.

논문투고일 2017. 9. 15
심사일 2017. 9. 26
심사완료일 2017. 10. 14

Researches and Their Meanings of Creativity in Dance Studies of South Korea

Kim, Hyunjung

Assistant Professor,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explores researches and their meanings of creativity in dance studies of South Korea, drawing on literature reviews and meta-analysis. Thirty-five studies of creativity, published in journals listed in Korea Citation Index, are categorized into eight topics: concepts and elements of creativity; development of the examination of dance creativity; creativity improvement through dance education and activity; application of philosophical or educational theories of creativity into dance; general discussion of educational values of dance and creativity improvement; relation between dance educators' teaching methods and learners' creativity; neuro-cognitive studies of dancers' creativity; and sociological studies of creativity.

Most of the researches discuss creativity in dance education, drawing on statistics and empirical data analysis. Neuro-cognitive or sociological approaches to creativity were done in the 2010s. Considering rapid changes of socio-cultural environmen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new ways of revealing multiplicity of dance creativity and to improve rigid educational system of dance.

Keywords: Dance studies (무용학), Creativity (창의성), Research trend (연구 경향), Meta-analysis (메타분석), Multiplicity of dance creativity (무용 창의성의 다양성)